



개인의 소공간

숭대극회 제8회 신입생 환영공연

- ◆ 원작 : N·HOLAND ◆ 기획 : 차세훈 ◆ 연출 : 김인보
- ◆ 일시 : 84. 3월 8, 9 PM : 4 / 6
- ◆ 장소 : 대 학 극 장



총장 강신명

격려사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부여된 위대한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보람되게 장식하는 것은 또한 人間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움추렸던 날개를 털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항상 살아 숨쉬는 우리 숭전과 脈을 함께 해온 숭대극회는 순수 그 자체를
추구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의 분투아래 大學人の 예술적 知性의 발로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공연하게 된 Noman Holand의 “개인의 소공간”은 인간의 한
계성을 느끼고 神에게로 귀환할 필요성을 인식케 해주는 작품이란 점에서 더
욱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새로운 大學生活을 시작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숭
대극회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오정열

지난
86년의 역사는 폐교라는 죽음과 개교라는 부활을 의미 합니다.

부활의 역사만큼 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역사는 없읍니다.
이 강한 긍정의 역사속에서 지성과 예술을 사랑해
왔던 우리 숭실인에게 연극은 숭실의 일이 되어왔습니다.

안으로
안으로만

감추어 오던 숭실의 입김과 언어와 정기를 이제 토
하고자 합니다.

오시어서
연극을 사랑하는 우리들.
이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차세훈

진심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했었다.

고통과 환희의 불꽃축제

찬란한, 그러나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젊은 날에의 아픔

이번 공연을

올리기까지

도와주신 전 극회원과

선배님 그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타를 바랍니다.

기획의 변

작 품 소 개

우리의 마이켈 말스턴은 감옥안에서 생활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죄수이다.

그는 상상속에서 자신이 알고있는 인물 즉 아내 사라, 친구 죠, 옛 애인 펠리스등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환대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의 환대는 오직 상상의 산물이었고 그것은 마이켈 자신도 의심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가 정말로 석방되었을때 그는 자기의 아내 사라를 찾아보고는 너무도 놀란다. 그녀는 이미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찾아간 친구 죠에게서도 역시 상상과는 정반대인 냉대와 질시를 받고 쳤거나고 만다.

그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였던 애인 펠리스에게서 조차 버림을 받았을때 이미 그의 마음은 감옥을 향하고 있었다.

상상과 현실의 엄연한 차이에 그는 당황하고 그가 다시찾는 곳은 그가 그렇게 저주하였고 나가기를 갈망하였던 바로 그 감옥인 것이다.

마이켈 말스턴은 시험대에 놓인 인간이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모든이들은 바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려는 의사였던 것이다.

인간이 자신과 교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 놓일 때, 자신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현실에 부딪쳤을때 그는 자기의自我 속으로 점점 파묻혀 버리고 만다.

더구나 그가 죄악이라고 생각하였던 곳도 그리워하게 된다. 현실속에서의 사라와 친구 죠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생각하여 볼때 너무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적응한 者만이 살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아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마이켈의 態度는 어떠한가?

그는 아내 사라를 다시 찾이하려고 별반 노력도 하지 않는다.

친구 죠에 대해서도 흔히 통용되는 협박이나 공갈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상상의 세계로서 그들을 대한다.

특히 펠리스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활속에 자신의 심신을 묻어버린 그녀를 발견하고 스스로 물어서고 만다. 그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일까?

그가 감옥에서 비폭력주의자로 化해 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方法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미 그 감옥을 다시 찾게될지 모른다는 必然的인 귀결을 갖고 나오게 된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덕의 영역(Zone of moral)밖을 생각하였을때 저절한 理性과의 싸움을 짐작하면서도 달콤한 유혹 때문에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

그는 또한 승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영역자체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확대시켜 나간다.

이렇듯 개개인이 자신의 영역을 주구하여 나가고 더욱 방대하여진 영역을 보고 어느것이 원래의 영역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도덕”이라는 말 자체도 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이다.

도덕이 있으되 그것은 이미 도덕이 아니요, 종교가 있으되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토록 타락된 생활에 적응되어 있고 타락된 생활자체를 도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도덕의 열릴 수 없는 문에 대고 고래 고래 외치고 있다.

“나를 들여보내주오, 제발 나를 들여보내주오! 나는 이 바깥세상에서 살만치 살았어 나를 들여 보내주오!”

-연출-

연출의 변



연 출 김 인 보

어지럽다

시간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멈추게 하고 싶다.

내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마이켈 말스턴 그는 누구인가?

人間들은 수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왔고 그러한 극복은 지금과 같은 文明世界를 맛볼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려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순수성”이 휩박받고 고난을 받는 시기가 오고 말았으며 극단의 個人主義는 利己主義로 줄 달음 치고 말았다. 이때부터 “타락”이란 말은 우리의 뇌리를 떠나 버리기 시작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적응”이란 듣기 좋은 어감의 말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스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확고한 생각으로 우리들을 사로 잡기에 이었다.

여기에 적응에서 제외된 한 인간이 있다.

그는 단지 전과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밀었던 친구에게서 배반당하며 모르는 여인에게서까지 냉대를 받는다.

그는 그러한 혼란과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너무도 처참한 인생의 포화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적응”에서 제외되었다고 그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적응할 만큼 재치있는 者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음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용기있는 者도 아니다. 그는 단지 어지러움속에 자신을 묻어 버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 앉아 나아갈 길을 찾고있는 어리석고 한심한 나의 얼굴인 것이다.

언제고 언제고 공허한 메아림에 눈물짓는 바로 우리의 얼굴인 것이다.

누가 그에게 生命의 밧줄을 던질 것인가?

CAST



マイケル / 위성신



사라 / 김미경



스테픈 / 김진희



죠 / 이충일



펠리스 / 문경애



간수 / 장성수



여인 / 곽수정

STAFF



조연출 / 박경



무감 / 엄세범



무대미술 / 정효민



조명 / 박경민



소품 / 정연희



분장 / 이성미



진행 / 김정은



효과 / 최주용

공연연보

回	年 月 日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극회 소인극 "칠세 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1923년 7 : 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계 인간" 엘랫 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외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체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유엘·베커트 作	김양기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살파" "담배죽에 對해서" "황금단지" (로마극) "고도를 기다리며"	정종화 윤병조 作 안톤·체홉 作 루리우터스 作 사유엘·베커트 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체 윤근배 차현재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 作	한영체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봉인
	1973년 10 : 25, 26, 27	"방" "기도" (소극장)	H. 펜터 作 F. 아라벨 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막)	A. 까뮈 作	정종화
13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품"	W. Arving 作(신입생환영)	김홍수
14	1975년 6 : 9, 10, 12, 13	"싸울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수
15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광화문"	Max. Frish 作	안홍수
16	1976년 10 : 25, 26, 27, 28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신입생환영)	김득남

回	年 月 日	作 品 名	演 出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득남
16	1977년 3 : 16, 17, 18	"뱀"	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영덕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웨퍼 作 백정식기획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웨퍼 作 방영철 기획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방영철 기획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퍼 作 민승기 기획	김영덕
21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신입생환영) 한철 기획	정재호
22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기획	이병국
23	1979년 9 : 29, 10 : 2	"초·불"	오대석 作 이정일 기획	황정순
24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기획	박양권
2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기획	오재환
26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기획	황정순
27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 作 전석근 기획	황정순
28	1982년 3 : 24, 25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作 최시영 기획	이용섭
29	1982년 6 : 12, 13	"까리끌라" A. 까뮈 作	용태웅 기획	지숙
30	1982년 10 : 7, 8	"에도우박스" M. 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기획	황정순	
31	1983년 4 : 16, 17	"블랙코메디" 피터데퍼 作 전희식 기획	홍여석	
32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차세훈 기획	김영덕	
33	1983년 10 : 7, 8	트리버 John Bowen 이원우 기획	오정열	